

## 2) 향교 중수와 이후의 사림활동

향교는 서원과 달리 좀더 많은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장소이다. 조선 후기의 향교는 강학의 장소보다 석전례(釋典禮) 등을 지내는 제례의 장소로서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명륜당보다는 대성전(大成殿)의 행사가 더 중요시된 것이다. 향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교도 다른 지역에서는 사림세력간의 분열로 구심점이 되지 못한 경우가 흔한데 이곳에서는 중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사람들의 중심처가 되었고, 이 위치는 계속 유지되었다. 다음은 1609년에서 1610년까지 있었던 향교 중수의 시말을 적은 것이다.

『순천향교중수기(順天鄉校重修記)』<sup>1)</sup>

부사를 지낸 유영순이 직을 마치고 돌아갔다. 승평의 유사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그가 사문(斯文)의 진흥에 힘쓰고 새로 향교를 창건하여 성령(聖靈)들이 기탁할 곳이 생기고 유림들도 기뻐할 곳이 생겨, 그 행적을 한 마디라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지 않을 수 없게 생겼다. 들으니 마침 남원부사 유몽인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고흥에 내려가 있다고 하니 글을 받아 문미에 걸어 놓는다면 지금이나 후에나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이에 여럿이 고흥으로 가서 부탁하자 몽인이 향교란 부자(夫子)의 묘인데 내가 감히 유지한 글로 어지럽힐 수 없다고 근심스럽게 말하면서 재삼 거절했으나 물리치지 못하고 그 전말(顛末)을 신중히 들어 기록하게 되었다.(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승평부에는 옛날에 향교가 성 동쪽 4리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는데 정유병란 때 소탕되었다. 난이 끝나자 임시로 성 북쪽에 다시 세웠으나 비탈이 지고 대로변이라 시끄러워 성령들을 모시기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기유년(1609)에 성 서쪽 조용한 곳에 성묘를 짓고 미처 수선하지 못한 것은 다음해에 유공이 와서 완성하였다. 이에 수령이 이를 조정에 계(啓)하여 향축의 내림을 받았다. 이듬해인 1610년 봄 상정일(上丁日)에 선성현(先聖賢)의 위패를 이안(移安)하였다. 모든 제기들을 다 갖추어 묘 동북쪽 구석의 고(庫)에 보관하였고 그 옆에 주방도 설치하였다. 강독할 책과 쌀, 배 약간 그리고 납속노비(納贖奴婢) 몇 구로 선비들을 공향(供餉)하게 하였다.

향교 중건 이후 한 세대가 지난 1647년에 중수가 끝났다. 이 활동은 당시 부사 김종일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김종일(1597~1675)의 자는 관지(貫之), 호는 노암(魯庵)이며 본관은 경주(慶州)로 관이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신지제(申之梯)·정경세(鄭經世) 등의 문인이며, 1660년에 허목과 함께 자의대비 복제에 3년설을 주장했다가 평해(平海)에 유배된 후 이듬해 방환되었다. 그가 이곳 부사로 온 해는 1647년(인조 25)이다.<sup>2)</sup> 흥학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진사 조시일을 도훈장(都訓長)으로 삼아 크게 덕화(德化)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묘(향교 대성전)가 경퇴(傾頹)함을 우려하여 극력 주선함으로써 1649년에 중수의 윤희를 얻었다. 향교교임으로 있던 조원겸(趙元謙)이 그 역을 맡았고 김부사는 속공노비(贖公奴婢) 중 일부를 향교에 지급하고 서책을 비치하였다. 읍사람들은 그를 기려 흥학비(興學碑)를 세웠다. 최식(崔拭)과 허빈(許彬)이 그 문을 썼다.<sup>3)</sup>

조시일은 자가 자건(子健)이고 옥천 조씨 입향조인 건곡 조유의 8세손, 찰방 지윤의 6세손이다. 쌍암(현 승주읍) 유곡(西谷)에 거하였다. 1633년에 사마에 합격하였으며, 병자호란의 호소사 정홍명의 인도하에 안용(安瑢)과 족제(族弟) 진사 조시술, 유학(幼學) 김정두(金廷斗) 등과 창의(倡義)하여 병마와 군량을 모았다. 조원겸의 자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덕촌(德村)으로 역시 건곡의 8세손이다. 하사면 인덕동에 거주하였다. 병자호란 때 읍민이 창의하여 모

1) 柳夢寅, 『於于集』 後集 卷四.

2) 惲中丞評記, 名宦條.

3) 興南學部, 『興學教』.

은 병마 군량을 가지고 여산까지 이르렀으나 강화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 돌아왔다. 김정두(金廷斗)의 자는 응추(應樞), 호는 묵암(默巖)이며 본관은 경주다. 고려 때 판서를 지낸 충한(沖漢)의 8세손이다. 서면 흑석촌에 거하였다. 병자호란 때 창의별유사(倡義別有司)를 지냈다. 안용(安瑢)의 본은 순흥(順興)으로 창의도유사(倡義都有司)를 맡았다. 조시술의 자는 학이(學而)로 진사 경(暲)의 아들이다. 황전면 선천에 거하였으며, 기암 정홍명의 문하에서 배웠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이곳 사람들 중에는 우산 안방준과 기암 정홍명의 영향을 받은 자가 많다. 정홍명(1592~1650)은 송강 정철의 아들로 자는 자용, 호는 기암이다. 송익필, 김장생 등 서인의 대가에게서 배웠다. 1646년에 대제학에 오르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문집 『기암집(畸庵集)』을 남겼다.

이응기(李應耆 : 1594~1660)는 효종 때의 문관으로 자는 군단(君端), 호는 취죽헌(翠竹軒)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세종의 7대손이다. 관이 참판에 이르렀다. 부사로 거사비(去思碑)가 있으며, 1692년에 허서(許緒)·정백령(鄭栢齡)·조필문(趙弼文)·정송령(鄭松齡) 등이 주동이 되어 청수서원을 건립했으며, 이수광과 함께 제향된 인물이다.<sup>4)</sup>

정지채(鄭之採)는 계림군 지년의 8세손으로 무과 출신이며, 1624년 이괄의 난 때 사직을 호위하여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으로 봉해졌다.<sup>5)</sup>

연안(延安) 이씨(李氏) 이구천(李龜千)은 좌의정 원발(元發)의 12세손으로 전주에서 이곳으로 와 우거하였으며, 일찍이 우암(尤菴)을 종사한 적도 있다.<sup>6)</sup> 박시원(朴時元)의 자는 군협(君俠), 호는 고산(高山)으로 상주 박씨 박대봉의 현손인데, 송명흠(宋明欽 : 1705~1768)의 문인이다.

1718년에는 향교 안에 양사재(養士齋)가 건립되었다. 이 당시 부사인 황익재(1682~1747)가 읍유(邑儒)의 종학지소(從學之所)로 창건하고 전답(田畓)을 획급(劃給)하였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18세기 전반기의 한 단계 발전한 이곳 사람들의 활동과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다.

당시 이곳에서는 여덟 문장가가 문필을 날려 ‘팔문장(八文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이름은 최만갑(崔萬甲)·양명웅(梁命雄)·박시영(朴時英)·정하(鄭夏)·정시관(鄭時灌)·황일구(黃一耆)·정우형(鄭遇亨)·허빈(許彬) 등이다.<sup>7)</sup>

최만갑의 본관은 전주이고 개명은 식(拭), 자는 공식(公式), 호는 우곡(牛谷)이다. 복시(覆試) 때 ‘벽상증검(壁上贈劍)’을 시제로 도장원을 하였다고 한다. 양명웅의 자는 세장(世長), 호는 창랑(滄浪)으로 부사를 지냈으며, 입향조 양신용(梁信容)의 손(孫)이다. 용두(龍頭) 사호(沙湖)에 거주하였다. 일찍이 문예에 뛰어났으나 문과시에 실패하고 우연히 무과에 합격하여 북관(北關)에 부임하였는데, 도방백(道方伯)이 참여한 연회에서 뛰어난 시를 지어 무과 출신으로서 문장에 능하다 하여 인구에 회자되었다. 박시영의 본은 상주(尙州), 자는 군수(君秀)로 대봉의 현손이다. 영조 때 주부를 지냈고 ‘보허사(步虛詞)’를 남겼다. 정하의 자는 경화(慶華), 호는 석란(石蘭)이며 경주 정씨이다. 정시관의 자는 옥이(沃而), 호는 난헌(蘭軒)이며 본관은 연일이다. 청사 정소의 증손이다. 성 남쪽 청사평(靑莎坪)에 거하면서 시를 읊고 학업과 장학에 힘썼다. 사계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성리학에 밝았다. 황일구는 처사

4) 『친증승평지』, 學校條.

5) 『향남악부』, 「碧潼守」.

6) 『친증승평지』.

7) 이하 『향남악부』, 「八文章」 참조.

(處士)를 자처하고 해촌(海村)에 거하였다. 방장산(方丈山) 부근 화개동(花開洞)에 거하면서 시를 읊고 소요하였다. 정우형은 현감 승복의 4세손이다. 자는 회경(會卿)으로 1620년에 출생하였다. 허빈은 양천인(陽川人)으로, 입향조인 현감 문경공(文敬公) 영의 6세손이다.